

배포일시	2020. 3. 17.(수) 14:00 (총 4매)	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대변인실	담당자	과장 이은정 사무관 노성운	전화번호 02-2181-0362

제37회 '기상기후사진 공모전' 수상작 발표

- 대상에는 용오름 현상을 포착한 김택수씨의 <쌍용오름> 선정
-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담은 총 38점의 입상작 발표

□ 기상청(청장 김종석)은 3월 17일(수) '제37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' 수상작 38점을 선정하여 기상청 누리집*과 공모전 누리집**을 통해 발표했다.

*기상청 누리집: <http://www.kma.go.kr/home/index.jsp>

**공모전 누리집: www.kmaphoto.co.kr

○ 지난 1월 29일(수)부터 2월 27(목)일까지, “날씨의 기억, 국민의 기록!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은 △일반사진 3,096건 △타임랩스 64건 등 △총 3,160점의 작품이 접수됐다.

□ 대상(환경부장관상)에는 진귀한 기상현상인 용오름을 잘 담아낸 <쌍용오름>(김택수)이 선정되었다.

○ 금상에는 한 편의 그림과 같은 안개 속 도시를 찍은 <안개도시>(방춘성)가 수상했으며, 독도가 구름으로 연결된 신비한 모습을 포착한 <구름모자 쓴 독도>(우태하)가 은상을 받았다.

- 이 밖에 동상 2점과 입선 30점이 선정되었으며, 타임랩스* 부문에서는 매화나무 가지에 내려앉는 눈의 모습을 담아낸 <설중매>(최영아)가 특별상을 받았다.

*타임랩스: 정상속도보다 빨리 돌려서 보여주는 특수영상 기법

- 이번 수상작들은 오는 4월 20일(월)부터 26일(금)까지 서울역에서 전시될 예정이며, 5월 11일(월)부터 17일(일)까지는 SRT 수서역에서 만남을 이어갈 계획이다.

※ 전시회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.

- 김종석 기상청장은 “신비하고 아름다운 우리 주변의 날씨를 담아낸 이번 수상작들은 기상학적으로도 매우 가치 있는 자료이며, 아울러 기상청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기상기후 역사를 함께 기록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”라고 밝혔다.

- 붙임 1. 제37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수상작 선정 결과
2. 제37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주요 작품

붙임1

제37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수상작 선정 결과

구 분	작품 수	훈 격	상 금	성 명	작품명	
일반 사진	대상	1점	환경부장관상	500만 원	김택수	쌍용오름
	금상	1점	기상청장상	200만 원	방춘성	안개도시
	은상	1점		100만 원	우태하	구름모자 쓴 독도
	동상	2점		각 50만 원	박창완	태풍이 지나간 해변
					김 호	눈 내리는 날의 외출
	입선	30점	상장 없음	각 20만 원	최종태 등	파도를 닮은 구름
타임 랩스	특별상	1점	기상청장상	100만 원	최영아	설중매
	입선	2점	상장 없음	각 50만 원	허규희	춤추는 운해
					우태하	안개폭포



|쌍용오름(대상 / 김택수 作)|



|안개도시(금상 / 방춘성 作)|



|구름모자 쓴 독도(은상 / 우태하 作)|